한국어의 중간구 오름조 현상에 대하여*

곽동기(신라대)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어의 강세
3. 한국어의 악센트
4. 중간구 끝에서의 오름조
5. 맺음말

<Abstact>

On the Rising Tone of Intermediate Phrase in Standard Korean

Dong-gi Kwack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re appears the rising tone at the end of the intermediate phrase in standard Korea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syllable with the rising tone, even if it is a particle or an ending, might be accented or not.

The accented syllable is the most prominent one in the given phonological strings. It is determined by the nondistinctive stress which is located on the first or second syllable of lexical word according to vowel length and syllable weight. So pitch does not have any close relationship with ac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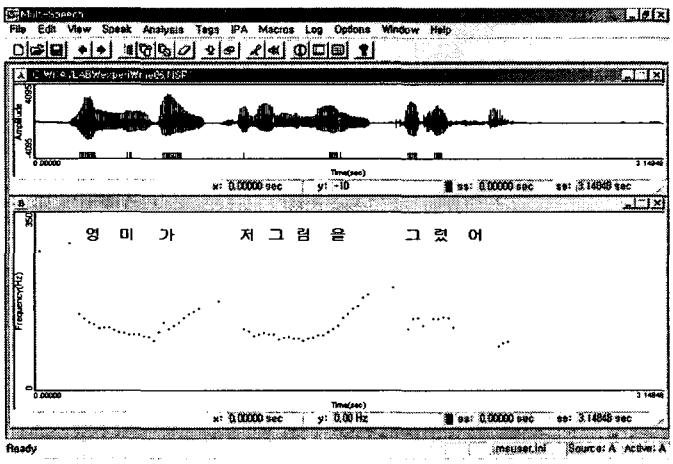
The intermediate phrase-final rising tone, therefore, is not associated with accent, but used to convey other pragmatic meanings, that is, i) speech style is more friendly, ii) the speaker tries to send the information for the hearer to hear more clearly, and iii) the speaker wants the hearer to keep on listening to him or her because the speaker's utterance is not complete.

* 이 논문은 1999년도 신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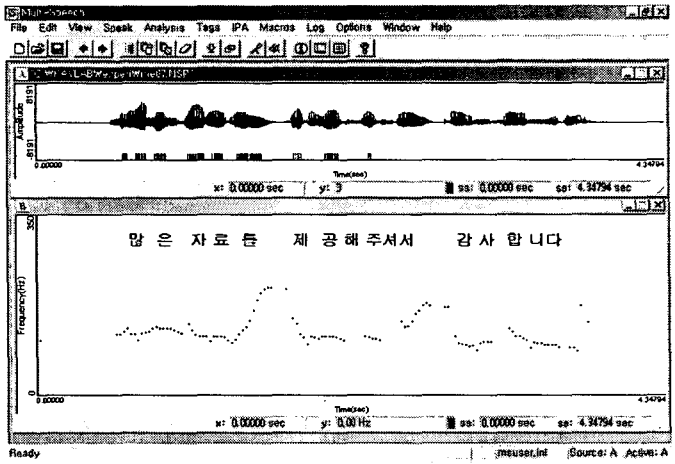
한국어 억양의 특징은 문미 억양의 다양함에 있으며 그 억양패턴을 이루는 억양절 바로 밑에는 중간구라는 하위 운율단위가 존재한다[1]. 그런데 이 중간구 높낮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중간구 끝에 오름조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구희산 1989). 말토막 끝에도 오름조가 대표적인 억양이며(윤일승 1992), 악센트구절의 끝에도 오름조의 특징이 있다(Jun 1993). 특히 Jun은 서울말과 전남방언의 악센트 구절의 특징을 오름-내림-오름조인 LHLH 음조형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간구 끝의 오름조 현상에 대하여 구희산(1989: 48)은 오름조가 실리는 음절이 주로 조사나 어미일지라도 그것은 악센트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1) 가. (영미<u>가</u>) (저 그림<u>을</u>) (그렸어).
나. (많은 자료<u>를</u>) (제공해 주셔<u>서</u>) (감사합니다).



<그림 1> 영미가 저 그림을 그렸어.

1) 억양구절 바로 밑의 하위 운율단위로 관점에 따라 악센트구절(Jun 1993), 음운론적 구절(곽동기 1992, Kang 1992), 말토막(윤일승 1992, 이호영 1997) 등의 다른 명칭들이 사용된다.



<그림 2>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가)와 (1나) 모두 한 개의 억양구절 속에 세 개의 중간구가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중간구 끝은 억양구절의 경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구의 특징이 드러나지 못한다. <그림 1,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중간구 끝에는 오름조가 실현되고 있는데 그 실현되는 음절이 조사이거나 어미이다[2]. 그런데 그 음절에 높은 음조가 실림으로서 중간구 전체가 오름조의 양상을 띄게 된다. 이렇게 높은 음조가 실린다는 것은 과연 악센트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일까? 악센트는 어떤 주어진 음절을 주위 음절들보다 돋들리도록 하는 것인데 그 돋들리도록 하는 음절이 의미적인 역할이 별로 없는 조사나 어미라고 한다면 정보전달 면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얼마나 될까[3]?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 이호영(1987)은 한국어의 악센트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

(2) 가. 첫 음절이 중음절(heavy syllable)이면 그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
나. 첫 음절이 경음절(light syllable)이면 다음 음절에 악센트가 온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는 첫 음절에 악센트가 놓인다.

규칙 (2)는 한국어의 낱말에서 어떤 음절이 악센트를 받느냐를 밝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낱말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악센트는 해당 음절을 돋들리게 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다음절로 구성된 낱말의 경우 그 낱말

2) 본 논문의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는 억양곡선은 서울말을 사용하는 30대 남성의 발음을 KAY사 Multi-Speech Version 2.3으로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3) 전은 외(1999)는 조사가 운율적으로는 앞의 다른 음절에 비해서 길이나 에너지 면에서 결코 약하지 않음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의 끝에 나타나는 조사나 어미는 이러한 악센트 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악센트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구의 끝에 있는 음절에 주위 음절보다 높은 음조가 실린다는 것은 주위 음절보다 돋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음절이 돋들린다면 그것은 분명 악센트가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간구 끝에 실리는 조사나 어미에 나타나는 오름조가 과연 의미적인 역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음절보다 돋들리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의 강세

악센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Gimson(1980)은 어느 한 음절이 주위 음절보다 두드러질 때 그 음절은 악센트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돋들림(prominence)의 요소들로 강세(stress), 음의 높낮이(pitch), 음질(quality), 음장(quantity)의 네 가지를 들었다. 여기서 악센트란 강세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보다 좁은 개념으로 Bright(1992: 107))에서는 강세를 음의 강약(intensity)과 연관을 짓고 악센트는 여기에 대조적인 음의 높낮이가 가미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호영(1996: 200)은 한국어의 악센트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장을 발화할 때 문장 차원에서 부과되는 강세 즉 문장강세를 악센트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보통 말토막의 첫 번째 강세음절에 실현된다고 하였다. 영어에서도 문장강세는 문장을 단위로 주어지며 어떤 주어진 단어가 단어강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리듬을 위한 등시간성을 위하여 단어강세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 영어의 억양을 분석한 Pierrehumbert(1980: 295)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주위 음절들보다 율격적으로 보다 강한 위치에 나타나는 문장강세의 음조를 고저악센트(pitch-accent)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저악센트를 제시하였다[4].

(3) Does Alamo have a library?
L* H- H%

(3)에서 문장강세를 받는 음절에 L*이란 고저악센트가 실현되고 있다. 여기서 H-와 H%는 각각 구절악센트(phrase accent)와 경계음조(boundary tone)를 나타낸다. (3)과 같은 억양단락에는 기본적으로 고저악센트, 구절악센트, 그리고 경계음조가 실

4) Pierrehumbert(1980)에서는 H*, L*, L*+H-, L-+H*, H*+L-, H-+L*, H*+H-와 같은 고저 악센트를 제시하였다.

현된다. Pierrehumbert(1980)에서는 고저악센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조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높낮이가 강세와 결합하여 나타난 모습들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악센트는 주어진 음절을 주위의 다른 요소보다 청각적으로 돋들리게 하는 것으로 강세, 음의 높낮이, 음절의 무게, 길이 등의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강세와 음의 높낮이가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세가 주요한 역할을 할 때는 강세악센트(stress-accent)로, 반면에 음의 높낮이가 주요한 역할을 할 때는 고저악센트(pitch-accent)로 나타낼 수가 있다(조성식 1990).

악센트는 강세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강세는 강도(intensity)와 관련지어 횡곽근육의 수축과 근육활동의 증가로 야기된 보다 많은 호흡에너지의 분출에 따르는 것으로 흔히 인식된다. 영어에서는 강세가 다음 (4)와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강세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4) 가. incréase(v.) vs. íncrease(n.)
나. repórt(v.) vs. réport(n.)
다. permít(v.) vs. pérmit(n.)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강세가 변별적인 기능은 없지만 엄연히 존재한다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먼저 허웅(1985: 246)은 운소를 다루면서 세기란 것을 언급하였는데, 말마디의 첫 음절이 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지만(5가), 둘째 음절이 세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5) 가. ˈ머리, ˈ사람, ˈ간다
나. 시ˈ늉, 합ˈ법

이러한 강세가 다음 (6)과 같은 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길이라는 운소와 관련되어질 때 강세가 변별적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그는 한국어에서는 길이가 주요소이고 강세는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6) ˈ눈:~눈, ˈ밤:~밤

이러한 한국어의 강세에 대해 이현복(1989)은 강세를 리듬의 단위인 말토막과 연관지어 주어진 말토막은 강세음절과 n개의 약음절로 구성되며 이 약음절은 강세 음절 전후에 n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어진 말토막이 한 개의 낱말로 구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낱말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말토막 안에서의 강세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이현복 1989: 140-1).

(7) 가. 한 음절로 된 말토막은 바로 그 음절에 강세가 놓인다.
나. 다음절 낱말로 구성된 말토막에서는 모음의 길이와 음절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다. 말토막이 하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질 때는 원칙적으로 의미의 비중이 큰 낱말에 강세가 오되, 위의 나)항의 원칙에 따른다.
라. 친근하고 감정의 관여도가 깊은 경우에는 강세가 후방으로 이동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강세가 전방으로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

(7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강세가 주어진다는 것이며('오:후, '사:무소), 모음이 짧더라도 주어진 음절에서 모음 뒤에 자음이 올 경우에도 강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성남시, '전주). 그런데 첫 번째 음절이 모음이 짧고 자음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놓인다는 것이다(이'마, 시'간). 그런데 여기서 모음의 길이가 길다거나 모음 뒤에 자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음절 구조상에서 바로 그 음절이 중음절임을 말해 주고 있다. 영어에서도 단어강세는 결정적으로 음절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영어의 명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류의 단어들은 어떤 규칙적인 행동을 보인다(전상범 1999: 225).

(8) 가. machíne 나. horízon 다. veránda
serenáde aróma synópsis

영어에서 명사의 경우 (8가)의 경우와 같이 마지막 음절이 긴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을 갖고 있으면 중음절이 되어 강세를 받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음절은 잉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8나)와 (8다)에서의 마지막 음절은 무시된다. 일단 제외하고 난 뒤 그 앞의 음절이 중음절이면 강세를 받는다. 따라서 (8나)에서는 무시된 음절 앞의 음절에 이중모음이나 긴장모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음절이 되어 강세를 받고, (8다)에서는 주어진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음절이 되어 강세를 받는다.

(7다)가 의미하는 것은 '우유'한잔'이나 '아주'좋아'의 예에서와 같이 두 낱말로 구성될 경우 의미의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 만약 의미의 비중이 앞에 있다고 하면 앞에서 제시된 예는 '우유 한 잔'이나 '아주 좋아'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7라)는 화용론적 정보도 강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7)의 네 가지 강세규칙은 리듬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는 한국어는 음절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강세박자언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어의 예 (9)에서는 강세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서 전형적인 강세박자를 보여주는 리듬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강세가 두드러지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강세박자언어의 특징이 그렇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9) ˈEveryone is aˈware how ˈstrongly the ˈgestures of the ˈhands, exˈpressions of the ˈface and ˈeyes and ˈbody reinˈforce the ˈspoken exˈchange of ˈthoughts and ˈfeelings. (Abercrombie 1964: 100)

리듬의 단위인 말토막에 근거하여 설정된 (7)과 같은 강세규칙에 대하여 이호영(1996)은 낱말과 복합어 그 자체에 강세규칙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7)과 동일하나 보다 형태론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낱말과 복합어에 강세규칙을 설정함으로서 보다 확연하게 그 면모를 볼 수 있다.

(10) 한국어의 강세규칙
가. 첫 음절에 강세가 부여된다.
나. 셋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낱말의 첫 음절이 가벼운 음절이면 강세는 둘째 음절에 부과되기도 한다.
다. 어휘화가 덜 된 복합어에는 구성 형태소의 수에 따라 둘 이상의 강세가 부과된다.

(10가)는 주어진 낱말이 단음절(ˈ산, ˈ강), 2음절(ˈ학교, ˈ사:람), 3음절(ˈ학생증, ˈ미:용사), 그리고 4음절(ˈ분명하다)로 구성되는 것과 상관 없이 모두 첫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10나)는 다음절로 구성된 경우 첫음절이 경음절이면 두 번째 음절이 경음절이든, 중음절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3음절어: 자ˈ동차, 개ˈ구리, 4음절어: 무ˈ자격자, 아ˈ름다운). (10다)는 복합어의 강세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나 이호영은 그 중에서 첫 형태소에 주어지는 강세를 주강세로, 나머지 형태소에 주어지는 강세를 부강세로 구분하였다(ˈ세:계ˈ대:전, ˈ문화재ˈ보:호법).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강세는 영어의 경우와 같이 어휘마다 강세가 결정되는 가변강세의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낱말의 첫 음절에, 만약 그 음절이 경음절이면 다음 음절에 주어지는 일종의 고정강세의 특징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강세는 변별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화자들이 강세를 잘 느끼지도 못한다. 이것은 한국어 화자들이 '아버지[abəji]'의 발음에서와 같이 영어의 유성폐쇄음 /b/를 발음할 수 있으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의 유성폐쇄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는 'boy' 등의 [b]의 음가를 잘 발음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강세의 비변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에게 인식되는 증거가 있다. 영어의 단어강세와 관련하여 영어의 단어들을 한국어 사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음하거나 영어의 단어강세를 모르는 사람이 발음한다면 원래의 어휘 발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11) 가. 이ˈ태리(←ˈItaly), 카ˈ나다(←ˈCanada), 니ˈ코틴(←ˈnicotine)
나. ˈ맥도날드(←McˈDonald), ˈ캠페인(←camˈpaign), ˈ탄자니아(←TanzaˈnIa)

영어의 발음들이 그대로 외래어로 통용되는 예들 중에 (11가)에 나타나는 영어의 어휘들은 영어의 단어강세규칙(antepenultimate stress rule)에 의해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그런데 그 음절이 외래어로 발음되면 경음절이 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낱말 강세규칙에 의하여 강세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과되어 원래의 영어발음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1나)에 나타나는 영어의 어휘들은 첫 번째 음절에 단어강세규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 못하나 외래어로 발음된다면 그 음절이 중음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세를 받게 되어 영어 원래의 발음과는 다르게 나타난다[5].

(11)과 같은 예들에서 영어 원래의 발음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은 분절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미국 내 라틴계 언어권 사용자들이 영어발음에 있어서 무성폐쇄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비라틴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강세 등의 운율적 요소들을 잘 소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세는 한국어에서는 비변별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운율적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어의 악센트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강세는 주어진 낱말에서 예측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변별적인 기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강세를 받는 음절은 주위 음절보다 세기가 커서 돋들리기도 하고 길이도 대체로 길다(이현복 1989: 133). 이러한 세기는 영어의 경우 'writer'의 어중자음 /t/가 원래는 두 번째 음절의 두음(onset)이었지만 그 앞의 모음에 주어지는 강세 때문에 첫 번째 음절의 말음(coda)으로 옮겨가서 설탄음(flap)이 된다는 Selkirk(1982)의 설명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또한 영어의 경우 강세를 받는 음절은 적어도 2모라의 구조는 갖추어야 하기에 'pétrol'의 경우 첫 번째 음절이 강세를 받으면 그 음절은 한 모라이기 때문에 뒷 음절의 /t/를 가져와서 두 모라 구조를 이루면서 그 /t/는 양음절성(ambisyllabicity)을 이룬다는 Hogg & McCully(1987)의 설명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명확한 역할은 없어도 다른 것과 관련을 갖게 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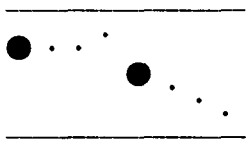
5) (11)의 예와는 달리 '오ˈ디션(←auˈdition), 리ˈ사이틀(←reˈcital), 커ˈ넥터(←conˈnector)'에서는 외래어의 강세 위치와 영어 원래의 단어강세 위치가 같아서 한국인들이 영어 원래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세가 바로 모음의 길이, 음의 높낮이를 포함하는 돋들림의 개념인 악센트와는 어떠한 관련을 맺을 것인가?

김선철(1994: 9)은 악센트의 주요 요소인 세기, 높이, 길이에서 한국어는 그 분석하는 학자에 따라 세기와 길이가 같이 작용하며 그 중에서 길이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복합악센트설과 음의 고저만이 음역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고저설이 존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악센트설에 관련하여 성철재(1992)는 한국어의 다음절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통해 낱말의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돋들린다고 함으로써 길이만이 돋들림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어의 강세규칙에 의해 강세를 받는 음절이 낱말의 첫 번째 음절이나 두 번째 음절인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악센트는 바로 강세와 동일시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는 길이라는 요소가 관여한다. 그러나 높이라는 요소도 한국어의 악센트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호영(1996: 224)은 서울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말토막 끝에서의 상승의 현상에 대해서는 말토막 억양의 네 가지 중에 오름조가 실현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12) 학교에서 공부했어



(12)는 오름조의 억양뿐만 아니라 강약패턴으로 실현되는 리듬패턴까지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말토막은 한 개의 강음절과 세 개의 약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름조가 실현되고 있는 마지막 음절은 약음절로 나타내어지고 있어 결코 돋들리는 음절이 될 수 없다. 특히 이호영은 문장차원에서 실현되는 문장강세를 악센트라고 함으로써 높이를 악센트 규칙에서 배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높이에 관련하여 구희산(1989)은 구절말(phrase-final) 음절에 나타나는 오름조는 바로 악센트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고, Cho(1998)는 억양곡선 분석에서 정점(peak)이나 골이 있는 부분이 바로 악센트를 받는 음절이라고 하면서 높이에 의해서 악센트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6]. 이에 대해 김선철(1997)은 서울말은 강세악센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구에 나타나는 고저악센트나 경계음조는 부수적으로 억양의미를 나타낼 뿐이라고 하였다.

6) Jun(2000)은 악센트구절의 끝에 나타나는 오름조를 Ha와 같은 말미음조(final tone)로 다루었고, Cho(1998)는 그것을 LH%와 같은 경계음조로 처리하였다.

4. 중간구 끝에서의 오름조

앞서 말토막이라는 단위는 한국어의 악센트와 관련된 리듬을 설명하는데 아주 편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말토막은 운율단위를 설정하는 운율음운론의 입장에서는 보다 충분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토막은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 ω)도 될 수 있고, 음운론적 구절(phonological phrase: Φ)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율단위는 결코 형태론적, 통사론적 정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들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할 때 한국어의 음운론적 단어와 음운론적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상규칙(mapping rule)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곽동기. 1992).

(13) 가. {좌측단, X}
나. {좌측단, X^{max}}

여기서 X는 명사와 동사와 같은 어휘를 가리키고 X^{max}는 최대투영인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등을 가리킨다. (13)에 의해 분석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4) $_{AdP}$[학교에서] $_{VP}$[$_{Ad}$[열심히] $_{V}$[공부했다]] : 통사적 구조
→ Φ(학교에서) Φ(ω(열심히) ω(공부했다)) : 운율적 구조

(14)에 의하면 '열심히 공부했다'가 말토막의 개념으로서는 화용론적 상황에 따라 한 개 내지 두 개의 말토막이 되지만 운율음운론의 사상규칙으로는 한 개의 음운론적 구절이 된다[7]. 그러나 템포, 문체(style) 등에 의해 재구조화는 항상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은 두 개의 음운론적 구절이 될 수도 있다(Nespor & Vogel 1986: 173-4). 음운론적 구절은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편리한 운율단위이지만 오름조와 같은 억양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중간구라는 개념이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구라는 운율단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중간구 끝에 오름조가 흔히 서울말에 나타난다고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 부

---

7) 이호영(1996: 200)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가)는 신중한 발화에서, (나)는 빠르고 친근한 발화에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가) ˈ학교에서 ˈ열심히 ˈ공부했다.
(나) ˈ학교에서 ˈ열심히 공부했다.

(가)는 세 개의 말토막으로 구성되며 각 낱말에 강세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고 (나)는 (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말토막이 한 개의 새로운 말토막으로 결합되어 (가)의 세 번째 말토막에 있던 강세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였다.

분에 과연 악센트가 부과되는가를 살펴보자.

Jun(1993)은 서울말에서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억양구절 속에 여러 개의 악센트구절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악센트구절 끝에 오름조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15) {kwaŋʤut'ɛk} {maɨms'iga} {nəmu} {ʧoa} '광주댁 마음씨가 너무 좋아'
H H H L

(15)에서는 네 개의 악센트구절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악센트구절의 끝은 억양구절의 끝과 동일하기 때문에 악센트구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Jun의 악센트구절은 중간구보다는 작은 단위의 운율단위이지만 템포에 따라 (15)를 중간구 오름조 현상의 예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중간구 끝음절에는 고음조(high tones)가 할당되어 있고, 표시는 없지만 첫 번째 중간구의 첫 음절과 두 번째 중간구의 두 번째 음절에는 강세가 부과될 수 있다[8].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세 받는 음절이 돋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고음조가 할당된 음절이 돋들리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높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말인 서울말과 경상방언의 차이를 살펴보자.

(16) 가. 말을 탄 사람이 "내 말은 말:을 잘 들어."라고 말:하였다..
겨울밤이 되면 할머니께서 구워주신 밤:이 생각난다.
나. '말을 탄 사람이 "내 '말은 ˌ말을 잘 들어."라고 ˌ말하였다..
겨울'밤이 되면 할머니께서 구워주신 ˌ밤이 생각난다.

서울말인 (16가)는 모음의 길이로 '말'과 '말:', '밤'과 '밤:'이 구별되고 있지만, 경상방언인 (16나)에서는 성조의 차이로 ''말'(고성조)과 'ˌ말'(저성조), ''밤'과 'ˌ밤'이 구별되고 있다. 문제는 높이에 변별적 기능이 있는 경상방언에서는 (15)와 같은

8) Jun(2000)에서는 다음 예에서처럼 악센트구절에 악센트구절 말미성조 Ha뿐만 아니라 악센트구절 모두음조(AP initial tones)도 설정하고 있다. 그녀는 강세를 인정하지 않지만 모두 음조가 실리는 그 음절은 앞서 논의한 강세가 주어질 수 있는 자리이다.

hyEQmininenIN	yEQarIR	miwEhAyo "형민이네는 영아를 미워해요."	
LHa	LHa	L%	음운론적 음조 층위
H +H L+ Ha	L Ha	L +H L%	음성적 음조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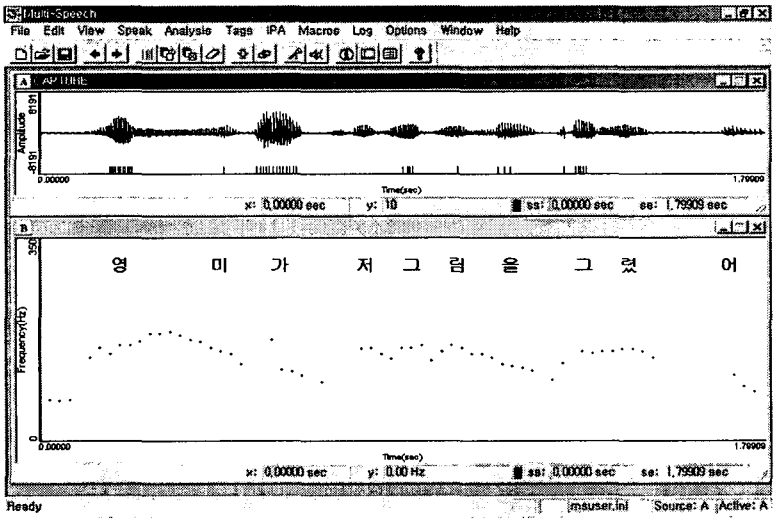
음성적 음조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센트구절 모두음조는 H, +H, 그리고 L이지만 위의 예의 강세음절에 주어질 수 있는 음조는 H와 L이다. 여기서 강세음절에 나타나는 음조와 악센트구절 끝에 나타나는 음조는 단지 악센트구절 모두음조와 악센트구절 말미음조의 차이일 뿐 어떠한 돋들림의 구별은 할 수 없다.

문장의 경우 중간구 끝에 오름조가 흔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높이는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이의 사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상방언의 경우 네/아니오 의문문의 경우일지라도 문장의 끝을 올리지 않고 내림조로 발음하는 경우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17) 너 밥 먹었나?
L%

(17)의 억양구절 끝에는 저경계음조(L%)가 나타나고 있는데 (17)과 동일한 서울말인 '너 밥 먹었니?'에서는 고경계음조(H%)가 나타날 것이다.

경상방언과는 달리 서울말은 높이를 변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높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 이차적인 기능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1가)의 예에서 중간구를 오름조로 발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내림조로 발음한 <그림 3>의 경우가 <그림 1>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서울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알아보자.



<그림 3> 영미가 저 그림을 그렸어.

20대에서 40대에 걸친 남녀 총 35명의 응답자 중에서 71%의 사람들이 오름조로 발음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말하는 태도가 보다 친근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80%의 사람들이 의미가 보다 잘 전달된다고 응답하였다[9].

9) 첫 번째 항목에서 5명(16.7%)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5명(16.7%)은 오름

<표 3> 오름조에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표.

	응답자수	백분율
말하는 태도가 보다 친근하다	25	71.4
뜻이 보다 분명하게 전달된다.	28	80.0

비록 적은 인원을 통해 이루어진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중간구 끝에 오름조가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말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며 의미의 전달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중간구의 오름조가 주어진 발화를 적절하게 구절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절화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의도나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보다 잘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화자는 자신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 청취해 달라고 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10]. 그러나 마지막 중간구에는 네/아니오 의문문이거나 반문 등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내림조가 실현되면서 휴지가 주어진다. 이것은 화자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단 끊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에 청자는 계속 들어주거나 자신이 말을 이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화술이 능한 정치가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가로채지 않도록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대체적으로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내림조 등으로 쉬지 않고 관사나 명사 사이에, 또는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휴지를 두기도 한다(Roach 1987: 145).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중간구의 구절화가 (18)과 같이 표어 같은 데서 아주 발달되어 있다. 그것은 적절한 음절수에 의한 간략한 표현이 의미를 확연하게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18) 가.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나. 안전하다 방심말고 내가 먼저 안전점검
다. 안전수칙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지키는 일

조가 오히려 말하는 태도가 사무적이다 또는 비호의적이다와 같이 응답하였다. 두 번째 항목에서 3명(10.0%)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4명(13.3%)은 오히려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0) 이러한 것은 Roach(1987)가 말하는 억양의 담화적 기능(discourse function)이다. 이와 관련하여 (15)의 첫 번째 중간구의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중간구의 두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악센트는 억양의 탁립적 기능(accentual func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간구 끝에 오름조가 실현되는 것은 그 음절이 돋들리는 음절이 아니라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간구 끝음절에 악센트가 주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중간구 끝에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의 중요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어의 중간구 오름조 현상은 악센트와는 상관없이 중간구의 구절화를 통하여 여러 화용론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진다.

5. 맺음말

한국어의 액센트는 비변절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강세가 나타나는 자리에 주어지며, 이러한 강세는 모음의 길이, 음절의 무게 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한국어의 악센트는 높이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표준어인 서울말에서의 중간구 끝에서 나타나는 오름조 현상은 악센트와 연관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친근한 태도를 나타내며, 또한 중간구의 구절화를 통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려고 하고 또한 청자에게 발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 청취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곽동기(1992), 「운율단위에 의한 국어 음운현상의 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구희산(1989), 영어와 한국어억양의 대조분석, 「영어교육」 38호.
김선철(1994), 국어 악센트 연구의 방향, 「언어학」 제16호.
_____(1997), 「국어억양의 음성학 ·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철재(1992), 표준 한국어 악센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21-24호, 대한음성학회.
윤일승(1992), 끊김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특징, 「말소리」 21-24호, 대한음성학회.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이호영(1987),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_____(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_____(1997), 「국어 운율론」, 한국연구원.
전상범(1999), 「영어학개론」, 한국문화사.
전은 외(1999), 한국어 조사의 운율적 특성-낭독체 문장을 중심으로-, 「말소리」 제37호, 대한음성학회.
조성식(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허 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Abercrombie, David (1964), *English Phonetic Texts*, Faber and Faber Ltd.

Bright, William (199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l. 4, Oxford University Press.

Cho, Yong-Hyung (1998), A Prosodic Labelling System of Intonation Pattern and Prosodic Structures in Korean, 「음성과학」 제4권 제1호, 한국음성과학회.

Gimson, A. C. (198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Edward Arnold.

Hogg, R. and C. B. McCully (1987), *Metric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un, Sun-Ah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_____ (2000), K-ToBI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 2000년도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음성과학회.

Kang, Ongmi (1992), *Korean Prosodic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Nespor, M. and I.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Foris Publications.

Pierrehumbert, Janet (1980),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English Intonation*, MIT dissertation.

Roach, Peter (1987),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lkirk, Elizabeth (1982), The Syllable, in Harry van der Hulst and N. Smith,(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Part II)*, Foris Publications.

접수일자: 2000년 9월 15일
게재결정: 2000년 11월 1일

▶ 곽동기(Dong-Gi Kwack)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속: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 051) 309-5304
Fax: 051) 309-5178
E-mail: dkwack@silla.ac.kr